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한혜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문윤리교육과
xxeloss@freenchal.com

Ethical contemplation into software piracy

Hye-Min Han
Public Ethics Education Department,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저작권에 대한 윤리학적 근거를 분석하고 저작권이 지니는 한계를 고찰하여 최근 반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주요 내용은 1)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윤리학적 근거, 2) 불법 복제 방지에 있어서 저작권의 한계 고찰, 3)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안의 모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서론
최근, 음악과일 공유를 증가하는 인터넷 사이트 ‘소리 바다’의 운영자들이 검거1)되면서 컴퓨터의 사상의 지적재산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과거에도 역시 멜티 스킨 시절2)이나 Warez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3) 등의 이슈가 표절될 때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불법복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런들,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 재산권과 그를 침해하는 불법복제의 문제는 컴퓨터가 대중화되고 난 이후에 상존하고 있다.

이런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입장은 점차히 ‘Copyright’로 대변하는 개인, 지적재산권 소유자, ‘Copyleft’ 라 일컬어지는 정보공유주의자들의 두 전영에서의 합의점을 찾는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 사이버 윤리학자 리처드 A 스프레들로가 지적하듯이, 우리 나라를 포함한 국내 지역에서는 지적 재산을 공공 재산이나 사회의 재산으로 취급하는 경향으로 인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진정성이 서구에 비해 빠르게 미약하다4) 따라, 우리 나라와 같은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사상에 비해 더욱 복잡하게 나타나며 그 해결 역시 미흡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먼저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이 지니는 윤리적 태당성을 고찰해 보았다. 또한, 불법 복제 문제를 잇는 무너지지 아닌 토사의 본질을 고찰해 지적재산권이 지니는 한계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분석을 통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윤리학적 근거

2.1. 개관
소프트웨어의 제작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사후 50년 후까지 저작권을 보장받게 된다.6) 이러한 저작권이 포장되는 윤리학적 근거로는 자유주의 분배적 정의론, 공적주의의 분배적 정의론, 공리주의의 분배적 정의론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의 세 관점을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윤리학적 근거를 분석하고자 한다.

2.2. 자유주의 분배적 정의론의 관점

자유주의 분배적 정의론의 관점에서 가장 섬도 있게 고찰해야 할 것은 로크의 재산권 이론이다. 그는 ‘노동은 어떤 작용에 의해서 소유한 것과 공유된 것간의 경계선을 설정한다.’7)고 주장하였다. 이 관점에서 언급하는 ‘공유된 것’은 신이 부여한 자원을 언급한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개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공유하고 있는 수학적 원리나 알고리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로크의 입장에 의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발생 이유를 설명한다면, 이는 ‘제작자가 그의 독창적 아이디어(노동)을 통해 공유된 것(수학적 원리, 알고리즘 등)을 자신에게 소유한 것(소프트웨어)으로 만드는 작용’에 따른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로크 이후의 자유주의자들의 논의 역시 제작자의 기여에 따른 권리 취득을 정립화하고 있다. 개인 성취에 따른 분배를 정의한다고 주장한 하이데그나 칼호페선에따른 분배를 정의한다고 한다. 간극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분배에 있어 기여를 중시한 점에서 동일하다.8) 로크의 재산권 이론에서 시작하여 현대 자유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 분배적 정의론의 관점에서 본다. 소프트웨어 제작자에 대한 저작권의 부여는 공로에 따른 분배의 병렬적 결과물로 귀결된다.

2.3. 공적주의 분배적 정의론의 관점

679
공적주의의 분배적 정의론은 무엇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가지는 상태를 정의로 삼아 정적과 상태로 규정합니다. 이 공적주의는 다음의 세 가지 근거에 의해 공적 이 분배 의 중요성을 지지한다. 첫째, 공적에 따라 보상받으므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둘째, 공적주의는 개인의 자유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셋째, 공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사와 참여의 자연적인 표현방법이 상당히 보상받는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 기여한 작가자에게 작가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적주의자의견에 따르면 당연한 것이며, 그들에게 있어 작가권이란 소프트웨어 제작의 공적을 지닌 자들에 대한 '감사와 참여의 자연적인 표현방법'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공적주의의 본질적 정의론의 입법은 작가 과정에 있어서의 기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분배적 정의론의 입법은 상황동일하다.

2.4. 공적주의의 분배적 정의론의 관점
 앞서 살펴 본 두 전임은 작가권을 개발 공로자에 대한 당연한 보상의 입장에서 전제한었다. 하지만, 이 점에서 다른 공적주의의 본질적 정의론의 작가권의 근거는 당연히 다른 목적적적, 실용적 측면에서 구하려 한다.

앞에서 언급한 공적주의인 '행위자'가 행위를 종종으로 하고 작가에 비해서 울리며, 통행을 산출하는 경향에 비해서 그로 '그것'으로서 설명된다. 이러한 공적주의의 후행주의, 결과주의의, 함재원리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공적주의 분배적 정의론을 통해 작가권의 정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결과주의를 고려해야 한다.

결과주의는 한 행위자에 물혹 그의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생겨나는 결과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으로서 울바른 행위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고려된다. 공공에 게, 그리고 최다 수수에 대해 행부를 기여할 수 있는 행위를 자임하는 결과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작가권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정의를 인정하는 것은 '더움 발생된 소프트웨어의 개발 의무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3. 법률 복제 방지에 있어서 작가권의 한계 고찰
3.1. 개관
앞의 2장에서 작가권을 정당화하는 윤리적 근거에 대해 탐구하고 보았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윤리적 입장 을 통해 분석한 바와 같이 작가권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 기여한 개발자에게 부여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이어나고 있는 소프트웨어 복제 복제 역시 바람직한 한가지 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저작권 제도를 통해 법률 복제 행위를 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 당국에서 통칭 Warez로 인식하고 있는 법률 복제 채택 사이트를 저작자로 통제하여도 무효작수처럼 다시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는 먼저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분석하여 보았다. 그 연구에, 분석된 본성과 연관하여 작가권 제도가 법률 복제를 예방함에 있어 지니는 한계를 고찰하도록 하였다.

3.2. 법률 복제 원인의 인간 본성 분석
인간의 심리 내면에는 성품을 구체화에 있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대가를 치러서 하는 본성에 대입되어 있다. 이는,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라 이보다는 문학, 사회 학적 배경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본성을 이용한 기술한 후 사용하여야 할 소품의 임상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제한된 범위의 사용자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아카데믹 마진 등의 판매 역시 인간의 경제적 본성을 겨냥한 것이다.

그리고, 고객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여력이 없으나 할 할인 혜택 또는 판매 권한이 허락된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낸다. 그 방법을 찾아보며 한 결과 합법적인 형태로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여 등을 들 수 있었으며, 반대로 불법적인 형태의 행위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본 연구에서 논의가 진행한 복제 복제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단순히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 위험의 비용이나 효과를 보고자 하여서 소프트웨어의 고객이기 때문에 법률 복제가 행해지고 있다는 본 연구는, 특히, 운행 자세나 사용자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집단 간의 고유한 인원이 일반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복제 복제의 민도가 더욱 높은 현상이다.

3.3. 법률 복제 방지를 위한 작가권의 한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간의 경제적 본성에 따른 요구로 인해 단순히 저작권만으로는 법률 복제를 방지하기가 극히 어렵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해당에 있어 설계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의 임상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발행자의 입장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격 책정의 측면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다. 그에 따라, 저작권에 의 해 소프트웨어 사용자로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의 필요성을 측정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는 법률 복제를 비정상적 방식으로서의 상황을 타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
4.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절제적 대안의 모색

4.1. 개관

앞서의 여러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입장에 따라 복제가 곤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가격 제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 예로 최근의 블록체인 문제에서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기업에서 개발된 약약의 경우에는 각 국가에 따라 경우 행복 국가의 경제적 조건에 고려하여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이를 무시하고 스위스의 경제 자산만큼 고려하여 블록체인 가격이 형성함으로써 국제사 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MS의 대표 OS인 Windows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200만 부 판매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303,600 원이 적다. 이는 소비자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가격이 필수 소프트웨어 OS부터 불법 복제와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격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2. 적정 가격 책정을 위한 구체적 방법

이제, 앞에서 내린 결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여 보자. 먼저, 가격 책정 이전에 고려한 대 소비자가 조사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료화 인 기존의 무료 콘텐츠들은 대다수 실질 조사를 통해 사용자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은, 일정한 가격을 수용하게 된다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는 효과적인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안하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은, 일정한 가격을 수용하게 된다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는 효과적인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안하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은, 일정한 가격을 수용하게 된다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는 효과적인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

물론,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개인 CD의 경우에 산업품 출시 후 '중업 CD'의 방식으로 원가의 1/4 정도의 가격으로 제출된다고 한다. 이 유 형 CD는 매뉴얼이나 불필요한 액세서리를 줄이므로 생산 원가를 낮출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역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유통에 있어서 다른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98년 도산 위기를 맞았던 한국문화재단사는 시학용 사용권 인정이라는 조건 대신 10만원이라는 영가에 한국실리共振을 공급하였다. 그 결과로 98년 말에 도산할 수 있었던 협회를 회생시킬 수 있었다. 이는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타당성,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사항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결과로, 98년 말에 도산할 수 있었던 협회를 회생시킬 수 있었다.